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례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지혜서 18: 6-9 | 제2독서 | 히브리서 11: 1-2, 8-19 | 복음 | 루카 12: 32-48

◎말씀 <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

여가활동도 그렇고 세상 무슨일이든 스스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면 소모적인 일로 여겨지고 지루해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을 찾는 이유, 신앙으로 얻는 보람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의 비유’입니다. 충실한 종은 주인이 외출을 하고 들어올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불충한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게으른 생활을 합니다.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은 주님의 재림 또한 알 수 없는 시간이기때 현명한 신앙인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충실한 종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자신의 일,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었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야하는 자신이 초라해보였다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주인이 원망스러웠다면, 그는

충실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복음의 정신을 되새기고 살아가는 것도 복음의 가르침이 불편하고 무거운 짐이라 생각된다면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물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 “준비하라!” 는 요구는 속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사는 기쁨, 복음을 찾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요구가 속박이며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삶의 모습, 복음 정신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겁고 지루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 신앙의 의미, 하느님의 신비를 끊임없이 찾고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준비, 깨어 있음은 괴로움과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과 새 하늘 새 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기쁨이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 보람을 스스로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8월 13일(화)	연중 제19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4,965.00 \$ 1,080.00
8월 14일(수)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오전7시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485.00 \$ 237,00
8월 15일(목)	성모 승천 대축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323.00 \$ 90.00
8월 16일(금)	연중 제19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ACA	\$ 2,000.00 \$ 100.00
8월 17일(토)	연중 제19주간 토요일	성령대회	합 계	\$ 9,280.00
8월 18일(일)	연중 제20주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아동: 7명 성인: 208명
교무금 봉헌자	송돈희.이강덕(7-12월)허용희.김양순(7-8월)윤영자.김기상(5-8월)이호영(1-8월)김기환.김형진(6-7월) 장신자(4월)전정옥(7월)권영일.김규철.박원상.이재덕.구준모.김광희.안강순.김상돈.허형.남필레.김 운태.김옥륜.백정심.전기계.김규대.조용주.박용호.김길록.장대석.이정규.엄용덕.류승교.김영숙(8월)			

◎신앙생활(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밥 한그릇의 깨달음

아이들이 크고 난 뒤로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아 졌습니다
그 날도 냉장고에서 대충 반찬을 꺼내고 밥 한 공기를
담아 혼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려는 순간, 그 날 따라 습관적으로 바치던 식사
전 기도가 되뇌어졌습니다. “주님, 은혜로이 내려 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그러자 문득 목이 메어
왔습니다. 한순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갑작스레 감사의
정이 복받쳤던 것이지요. 밥 한 톨에 깃들여 있는 햇빛과
빛줄기와 누군가의 수고와 땀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그 자체로 사랑이고 신비였습니다.

몇십 년을 습관적으로 먹어오던 밥이 그 날 따라 왜 그럴
게 처음 맞닥뜨리는 새로운 경이처럼 느껴졌는지, 아마
은총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그 날
이후로 이 세상을 바라보던 내 눈에서 습관의 굳은 껍질이
한 꺼풀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앞산의 푸른 나무와 나를
둘러싼 모든 사물과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서도 밥 한그릇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우주적 사랑이 깃들
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과 연대해 있으며, 결코 혼자가 아니고
혼자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랑 가득한 손길
로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어루만 지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짧을 수도 있는 나그네 길 같은 이 세상 여정이
감사로 가득 찬 나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힘을
얻듯이, 누군가와 또 그렇게 밥을 나눌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울 수 있겠지요.

실은 감사해야 할 일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사소하게 여겨
지는 일상이 무딘 눈과 가슴에 종종 파묻혀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날, 홀로 앉아 있던 식탁에서 밥 한 그릇을 통해 그분
은 조용히 말을 건네시고 내 눈을 환하게 열어 주셨습니
다. 그 날의 식사는 성찬례와도 같은 은총의 식사였습니다
지금도 들판엔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곡식들이 머물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가지가 휘도록 묵직하게
여물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누군가의 밥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최이주.베아타
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
배미성.오티리아/박모란.글라라/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황순이.마리아의 영혼	황성연.안토니오	생	박은주.율리안나의 새로운 생활	한은실.도미니카
연	이봉기.요아킴의 영혼	임정남.실비아	생	변홍식님의 퇴임과 영육간 건강	한은실.도미니카
생	박성우.바오로와 가족의 영육간 건강	박프란치스코	생	김채홍.어거스틴,김정애.헬레나의 영육간 건강	주동숙.모니카

간
장
중
지

●내 마음의 풀밭●
내 마음의 풀밭에 풀들이 춤을 춘다
안 보이는 님 오실 땐 풀들이 춤을 춘다

유경환.클레멘스.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성 명: 전노아
출생일자: 2019년6월 18일생
가족관계: (부) 전기주.안토니오
(모) 양지연.이냐시아
(형) 전재민.미카엘
구 역: 8구역

정영규.안토니오 피효진.아그리피나
정지수.카타리나 정우영.알베르토
정준영.베네딕토 (이상 10구역)

이재흠.바오로 김미경.마리아 막달레나
이현석.베드로 이정석.사도요한 (이상 8구역)

●공동체 소식(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예비신자 교리반 시작(성탄반)
매주 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예비신자를 계속해서 인도해주세요(8월말까지)
지속적인 전교를 실천합시다.
- 2.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18일(일)성당에서 오후3시 출발
참여단체;요셉회 .공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 3.모임안내
거룩한독서:14일(수)오후6시30분.성당
꼬미시움 :18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 4.본당신부님 휴가
일시:19일(월)-30일(금)
화.목요일은 말씀의 전례가 있습니다(부제님)
- 5.제25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17일(토)성당에서 오전6시출발
장소:산호세성당(1523 McLaughlin Ave)
문의:김은영.폴리나(성령기도회장)
- 6.레지오 일일피정
일시:9월 14일(토)산호세성당.6시30분 출발
주제:레지오 단원의 성모신심 문의:윤재경
강사.조영종.율리오(북미 세나투스 단장)
- 7.청년회 피정
일시:9월21일(토)-22일(일) 장소:Lake Tahoe
문의:최스텔라(카톡;steljchoi)
많은 관심과 후원부탁해요.
- 8.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일시:8월 15일(목)오후7시30분.성당
의무 대축일 미사이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9.본당 골프대회(주일학교 후원위한)
일시:10월 13일(일)오후1시30분(Shotgun)
장소:Lincoln Hills 참가비:\$85
문의:장현철(916-293-2499)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0.남가주 ME 제81차 주말안내
일시:9월 13일(금)-15일(일) 오후7시30분 시작
장소:아씨시피정센터 문의:이은로.이진숙
 - 11.St.Mary 천주교공동묘소 한국Section 계약
일시:11일(일) 오전10시-오후2시
장소:친교실 마태오방 앞
계약방법:일시불(2%할인)무이자할부(3년or4년)
할부시는 매입금액의 10% Deposit
결제방법:현금,개인Check,Credit Card 중 선택
이후계약은 계약자가 직접 St.Mary묘소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묘소직원의 가정방문계약도 가능
문의:고원석.바오로(916-813-4440)
 - 12.교구 2차헌금
일시:11일(일)모든미사
목적:Church in Latin America
 - 13.무료건강검진(Health Fair) 안내
일시:10월 12일(토)오전8시-오후1시
주최:정혜엘리사벳성당.한인간호사협회
문의:김규철.레오(952-836-7117)
약품구매/행사경비마련위한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 14.혼인을 축하합니다.
신랑;김영훈.필립 신부;김진리.아네스
김귀태.안셀모 김은영.프란체스카의 장남
김석민.프란치스코 김경숙.율리에따의 녀
혼배미사;9월7일(토)오전10시30분.성당
두분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15.감사합니다.(도네이션)
성당발전기금:익명(\$2,000)
- <주일/한글학교 소식>
주일학교 방학동안 어린이(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주일미사에 잘 참여해 주세요.
●식사봉사(이번주);이서향&친구들 보조:신정옥
식사봉사(다음주);아빌라회 보조:신정옥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5-6구역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전례봉사	연중 제19주일(8월11일)	연중 제20주일(8월18일)	연중 제20주일(8월25일)	연중 제20주일(9월1일)
해설	김은선.제노베파	김선영.플로라	임상일.프란치스코	정미정.루시아
제1독서	안강순.안젤라	안병훈.스테파노	김미해.세레나	이재덕.스테파노
제2독서	진엘리사.엘리사	안혜숙.세실리아	진엘리사.엘리사	이은희.요세피나
복사	최준우.장현철	김규철.윤여훈	허호영.박성호	최진호.이상인
봉헌/기도/청소	5-6구역	5-6구역	5-6구역	5-6구역
헌금위원	이영숙.임혜숙.이경희	전비아.유정임.나송희	임상일.박병수.안혜숙	고원석.윤재경.안강순